



‘비브 아시아(VIV ASIA) 2007’을 다녀와서 중국의 약진 두드러져... AI 극복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

장 두 향 기자
농수축산신문

섭씨 35℃를 웃도는 날씨.
한국에서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7~9일 태
국 방콕의 날씨는 그러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브 아시아(VIV ASIA) 2007’
이 열리는 태국 방콕의 국제무역전시장 바이텍(BITEC) 앞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금발에 푸른 눈을 한 사람, 까무잡잡
한 피부에 짙은 눈썹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띈다.

중국의 약진

이번 박람회에는 총 38개국 518개 업체가 참여했다.
약 2만2천여명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박람회에
서 표면적으로 가장 잘 들어오는 것은 붉은 간판을 단 중국 업
체들의 부스이다. 여기저기 많이도 있다 싶었는데 역시나 중
국에서만 80개 업체가 참여해 참가율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23개 업체가 참여, 통일성 있는 한국관을 구성
해 눈길을 끌었으나 대다수 참관객들은 이번 박람회의 최대
특징으로 중국의 약진을 꼽았다.

경기지역에서 기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한 참관객은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가격이 많게는 50%까지 저
렴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관내 부스



중국부스내 항생제 완제품 판매부스 GMP 인증서를 전면에 내세운 중국업체 부스

동물약품의 경우 항생제 원료부터 완제품, 천연물질을 활용한 첨가제 등 어지간한 품목을 염가에 갖춘 것은 물론, 업체들은 저마다 GMP(우수의약품제조안전관리기준) 인증서를 부스 전면에 부착해 전과 다른 품질력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국내 동물약품업체들의 품질이나 이미지가 세계 시장에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환율상황도 좋지 않아 수출시장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전 같지 않고, 카피제품이 난립하는 국내 동물약품업계의 새로운 활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이제는 한국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게 됐지만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낯설게 다가온 것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고병원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AI에 걸린 닭은 살처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한국의 한 축산업관계자로서 관련 백신 홍보가 백주대낮에 이뤄지고 있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메리알은 H5형 AI에 대한 백신을 판촉하며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 이상이 사용하고 있

다”며 “상당수 국가에서 AI관리에 백신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한 양계산물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했다.

행사장을 찾은 국내 계열업체의 한 관계자는 “홍콩에서는 H5N2형에 대한 백신개발 성공이 뉴스로 나오고 중국은 이미 백신을 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등 국내 상황과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종계 생산성 저하 요인 중 하나로 저병원성 AI가 꼽히는 만큼 국내 업체는 백신 효용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AI 청정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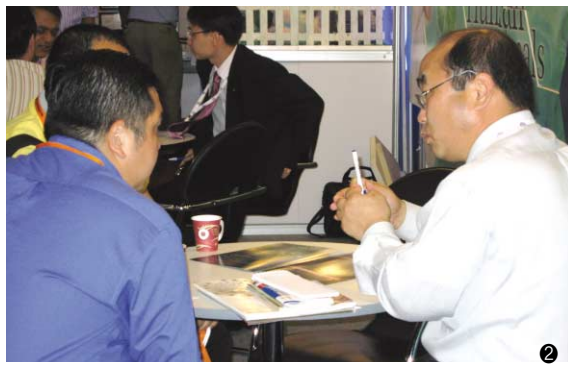
질병극복 최대 이슈

분명한 것은 가축질병 방역, 특히 AI 극복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던가.

가축질병 관리가 부실하면 나타나는 양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이다.

행사 첫날 오프닝 직후 열린 ‘태국 양계산업에서의 차단방역’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질병 발생 피해액은 2004년 한 해에만



- ① 국내 종계업자들이 기지재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 ② 상담 중인 국내 동물약품업체
- ③ 대전국제축산박람회 홍보팀이 9월에 열릴 박람회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9,960억 바트(1바트 28원 계산시 한화로 약 27조8,880억원)으로 추정됐다.

물론 이는 비단 태국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양계업계 전문가들이라면 향후 양계산업의 관건은 AI 발생과 그 여파관리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생제 관리가 또 하나의 관점으로 꼽힌다는 점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참관객 가운데 양계사료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효과는 항생제와 같으면서 내성이 없는 대체제를 찾는 것은 최근 모든 축산박람회 참관객의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계와 오리사료를 만들 때 고열이 필요한데, 이 때 영양소 파괴를 가능한 줄여야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이의 해결책에 관한 소구의 성과를 올렸다”고 귀띔했다.

한국관과 대전국제축산박람회 홍보팀

이틀 내내 박람회 행사장을 비집고 다니던 중 반가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의 축산박람회인 대전국제축산박람회 홍보단이었다. 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 축산기자재협회와 대전국제축산박람회 사무국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전 부스를 돌며 일대일로 관계자를 면담,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었다.

대전국제축산박람회는 오는 9월 12~14일 대전국제무역전시장(KOTREX)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다.

전현수 대한양계협회 부장은 “역대 개최 건 중 해외축산박람회에서 직접 발품을 팔며 관계자를 면담, 홍보를 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국내 축산박람회 참여도가 좀더 높아져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행사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매력적이었던 듯하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주도로 각 약품업체들은 하나의 한국관을 구성, 밀도있는 전시와 아울

러 쇼핑백 로고도 한국관광공사의 ‘Dynamic Korea’로 통일해 호평을 얻었다.

CJ 사료는 대장금을 테마로 부스 홍보전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갖는 효과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효과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같고 닦아질 수 있을까. 중국 축산업의 급성장으로 좁아지는 시장, AI 등 가축질병 극복 등의 과제를 풀어가면서 말이다. 언젠가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국내 축산업계가 선도해 가는 상상 혹은 희망을 해본다. 🇰🇷

mini 인터뷰

이안 판톤(Ian S.Panton) 에이비아젠(Aviagen) 그룹 회장

“AI 발생과 그 여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양계산업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안 판톤(Ian S.Panton) 에이비아젠(Aviagen) 그룹 회장은 이같이 단언한다.

그는 “고병원성 시는 원종계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구체적인 사항으로 닭고기 소비감소로 인한 간접적 위축과 가금류 수출입 규제를 꼽았다.

에이비아젠 그룹은 이에 대비키 위해 공급기지를 세계 곳곳에 배치시켰다.

그러나 그는 이로써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관리 포인트를 짚었다.

첫째는 고병원성 시 발생시 이에 대한 공포감으로 소비자들이 패닉상태에 빠져 양계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는 이에 정부와 언론의 협조가 필수라고 피력했다.

둘째는 발병을 막기 위한 방역과 발생시 일사분란한 이력추적과 확산방지책이다.

이안 회장은 “한국은 이같은 조치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시발생국가인 싱가포르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청정지역으로 분류돼있는 말레이시아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한편 그는 최근 육계시장의 흐름과 관련 지역별로 색깔이 있는 ‘토종닭’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지목했다.

이안 회장은 “토종닭 시장은 아직 소규모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그 시장에 그룹이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공급책과 상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양관리면에서 좋은 규격과 품질을 자랑하는 육용계 공급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에이비아젠(Aviagen) 그룹은 조류를 뜻하는 Avian과 유전자를 의미하는 Genetic을 합한 로스, 아바에이커, 로만 인디안 리버 등의 원종을 관리하는 세계적인 육용계 공급제이다.

